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0.(목) 10:00

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04호
- 나. 제 출 자 : 김영섭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1. 5. 28.
- 라. 회부일자 : 2021. 5. 28.

2. 제안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고,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기준 마련 (안 제4조)
- 라. 실태 조사 등 (안 제5조)
- 마.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안 제6조~제7조)
-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1. 5. 28. ~ 6. 2.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4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제7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을 규정
- 안 제8조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다. 검토의견

-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 확대와 이용자의 급증으로 관련 「도로교통법」(2021. 1. 12 일부개정, 2021. 5. 13 시행)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자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허용하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됨.
-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2021. 1. 21., 타법개정]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